

朝鮮 英祖代의 經筵

權 延 雄

머리말

I. 講義頻度

II. 講讀敎材

III. 入侍節次

IV. 講義方式

맺음말

머리말

朝鮮王朝는 18 세기에 이르러 중대한 挑戰에 直面했다. 支配層 내부의 葛藤인 黨爭의 長期化, 經濟的 發達과 貧富의 隔差, 奴婢制를 비롯한 身分 構造의 動搖, 西學의 傳來와 朱子學의 權威에 대한 批判 등. 이러한 構造的 矛盾들은 3 백년 이상된 낡은 政治體制가 감당하기에 벅찬 문제들이었다. 그러나 조선왕조는 대단한 活力을 발휘하여 이러한 狀況에 對應했다. 특히 英祖代(1724~1776)에는刮目할 만한 改革政治를 실현하여 王朝의 中興에 寄與했다. 비록 당시의 개혁이 根本的인 矛盾을 그대로 둔 彌縫策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危機를 일단 克服한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의 關心을 끄는 것은 改革의 限界가 아니라 그 낡은 政治體制의 持久力과 蘇生力이다. 이러한 活力의 根源은 무엇인가?

이 質問은 매우 生疎하게 들린다. 사실 우리는 모두 近代의 思考方式에 젖어서 變化乃至 發展에만 價値를 부여하고 持續과 反復은 否定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停滯論의인 視角으로는 朝鮮後期の 政治史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王朝의 政治體制는 상당한 合理性을 內包하고 있었으므로 內外의 挑戰에 對應하면서 長期間 持續할 수 있었던 것이다. 政治體制는 權力構造와 政治 이데올로기와 엘리트 集團의 複合體이다. 따라서 우리가 舊體制의 合理性을 發見하려면 制度和 思想과 政治集

團의 複合作用을 總體의으로 考察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經筵은 舊體制의 持久力과 對應力을 解明하는 端緒를 제공한다. 經筵은 儒臣들이 王에게 經史를 가르치는 制度的 장치였으며, 經史를 가르치는 목적은 거기에 실린 儒敎의 政治規範을 實踐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君臣들은 현재의 심각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講究했다. 經筵은 곧 制度와 思想과 엘리트 集團이 接合하는 場이었다. 經筵의 이러한 性格은 英祖代에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것은 英祖가 朝鮮後期의 여러 君主 가운데 經筵을 가장 자주 실시했으며, 여기서 당시의 懸案들을 활발히 토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英祖代의 經筵은 조선후기의 政治史를 研究하는데 不可缺한 要素라고 하겠다.

本稿는 英祖代의 經筵을 概觀하여 그 輪廓을 把握하고자 한다. 英祖는 31歲에 即位하여 52年 동안 在位하면서 經筵을 꽤 자주 실시했다. 매번 經筵에서 講讀하고 討論한 내용은 『承政院日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은 純漢文으로 經筵 1回分이 보통 2천자 정도이며, 전체의 분량은 막대하다. 本稿는 이 기록을 토대로 하여 英祖代의 經筵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물음에 대답하고자 한다. 英祖는 經筵을 얼마나 자주 실시했나? 그는 經筵에서 어떤 敎材들을 講讀했나? 經筵에는 누가 入侍했나? 講義는 어떤 方式으로 했나? 여기서는 이런 사실들을 정리하는데 注力하겠으며 英祖代 經筵의 政治的 機能에 대해서는 간단히 言及하는데 그치겠다.

I. 講義頻度

英祖代 經筵의 講義日程은 오랜 傳統의 產物이었다. 일찍이 北宋에서는 隔日講義와 春講·秋講의 제도가 처음 생겼다. 隔日講義란 황제가 偶數日(雙日)에는 經筵에 참석하고 奇數日(隻日)에는 政事를 처리하는 방식인데 후에는 반대로 奇數日에 經筵을 실시하기도 했다. 春講은 二月初에 시작하여 5月初에 끝났으며 秋講은 8月 上旬에 시작하여 冬至前에 끝났다.

그러나 南宋의 寧宗은 여름과 겨울의 放學을 없애고 每日 강연을 실시했으며, 奇數日에는 兩講, 즉 早講과 晚講을 실시하여 經筵의 頻度가 크게 늘었다.¹⁾ 이러한 原則이나 先例가 비록 철저히 지켜지지는 않았으나 그것이 後代에 미친 영향은 컸다. 君主는 經筵에 자주 참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으며, 조선왕조에서는 이를 鐵則으로 받아들였다.

조선초기에 經筵이 정착하는 가운데 강의일정도 대체로 확립되었다. 우선 世宗(1418~1450)은 在位 32년 중 前半의 16년 동안은 매일 經筵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매년 평균 1백회 이상 經筵을 실시했다. 그후 成宗代(1469~1494)에는 왕이 하루에 여러번 經筵에 참석하는 관례가 생겼다. 왕이 未成年일 때 一日三講한 先例는 端宗朝에도 볼 수 있다. 그러나 成宗은 在位 7年만에 成年이 되었는데 그후 죽을 때까지 17년 동안 一日三講의 원칙을 지켰다. 더우기 成宗은 정규 강의(朝·晝·夕講) 이외에 이따금 夜對라 하여 밤에도 經史를 강독했다. 이로써 一日三講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고 夜對라는 관례도 생겼다. 그후 明宗朝 初期에 召對라는 略式의 講義가 생겼다. 經筵의 경우에는 참석자들에게 강의시간을 하루 전에 미리 통보했는데, 召對는 不時召對로 그날 아무 때나 入侍者들을 召集했으며, 入侍者들의 수도 적었다. 또 夜對와는 달리 召對는 晝間에 실시했다. 이리하여 三講(朝·晝·夕講)과 二對(召對·夜對)가 祖宗 以來의 傳統으로 조선후기에 계승되었다.²⁾

조선후기의 經筵이란 결국 三講과 二對를 말한다. 당시에 三講은 經筵(또는 法筵)이라 하여 二對와는 格이 달랐다. 그것은 三講에는 1품 내지 2품의 大臣도 入侍했으나, 二對에는 3품 이하의 官員만 입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君主의 經史講讀이라는 觀點에서 보면 三講과 二對의 차이는 形式的일 뿐이며 本質的으로는 兩者가 同一한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

1) 拙稿「宋代의 經筵」(全海宗 편『東亞史의 比較研究』1987 一潮閣)을 參照.

2) 拙稿,「世宗朝의 經筵과 儒學」(韓國精神文化研究院編,『世宗朝文化研究(I)』1982 博英社) 및「朝鮮 成宗朝의 經筵」(國際文化財團編『韓國文化의 諸問題』1981 時事英語社) 參照.

서는 經筵이라는 單語 속에 三講과 二對를 包括하여 使用한다.

그러면 英祖는 經筵, 즉 三講과 二對를 얼마나 자주 실시했나? 『承政院日記』는 王의 言動을 매우 상세히 기록했으므로, 이 기록에서 英祖의 經筵出席을 點檢할 수 있다. 그런데 『承政院日記』는 三講과 二對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기재했다. 三講의 경우에는, 그날 기록의 첫머리에 “上在昌德宮 停常參 只朝(晝夕)講” 또는 “上在昌慶宮 停常參經筵”하는 식으로 常參과 아울러 經筵의 實施與否를 반드시 밝혔으며, 실시한 날에는 뒤에 그 내용을 자세히 밝혔다. 한편 召對나 夜對의 경우에는 實施與否를 앞에 標記하지 않은 채, 뒤에 그 내용을 자세히 적었다. 결국 英祖의 經筵出席을 點檢하려면 英祖朝의 『承政院日記』 제31권~제77권 (縮小影印本)을 모두 涉獵해야 한다. 또 實錄의 記事와 對照해야 한다. 이렇게 영조의 經筵출석을 점검한 후 이를 다시 分類하여 集計한 것이 <表 1>이다.

<表 1>을 보면 英祖가 經筵에 출석한 動向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英祖가 經筵에 꽤 부지런히 출석했으나 起伏이 심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31세에 즉위한 후 83세에 逝去할 때까지 在位 52년 동안 도합 3천회 이상의 經筵을 실시했다. (필자가 확인한 것이 3,458회임) 이것은 1년에 평균 66회, 한달에 평균 5회 정도의 經筵을 의미하며, 조선 왕조의 역대 君主 가운데 우수한 出席率이다. 그러나 英祖의 經筵출석은 기록이 심했다. 때로는 일년에 1백회 이상의 經筵출석이 4년간 계속되기도 했다. 가령 영조 10년(168회)·11년(118회)·12년(139회)·13년(101회)은 40代初盤의 왕성한 의욕을 반영했고, 39년(209회)·40년(188회)·41년(164회) 및 46년(199회)은 古稀가 지난 국왕의 老益壯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王의 經筵출석이 1년에 12회(월평균 1회) 이하로 극히 低調했던 해도 열 번이나 된다. 經筵은 國喪, 政變(逆謀), 王의 疾病 등 여러가지 要因에 의해 中斷되기 마련인데, 英祖의 在位 半世紀는 워낙 多事多難했기 때문에 王의 經筵출석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게다가 王의 感情까지 起伏이 심하여 經筵출석이 더욱 들쭉날쭉했던 것 같다.

表 <1>

經筵의 朔度(年月 및 種類別)

年	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閏	計	朝	晝	夕	召	夜
即位									即	1	10	3	1	・(4)	15				9	6
1		11	14	12	8	13	3	7	6	12	6	5	5		102	2	51	9	34	6
2		3	6	13	8	15	16	3	5	9	5	11	7		101	2	34	5	54	6
3		6	7	10	10	8	4	4	6	4	9	4	3	9(3)	84	・	44	4	26	10
4		6	19	6	3	4	10	7	13	4	6	・	4		82	3	23	3	50	3
5		2	8	8	7	13	5	9	8	13	7	4	4	14(7)	102	1	39	5	53	4
6		6	3	2	3	1	5	・	2	1	1	2	8		34	・	6	・	23	5
7		5	4	2	7	15	9	5	2	・	17	11	5		82	2	25	6	45	4
8		12	9	9	10	3	・	1	1	2	・	1	1	6(5)	55	1	27	2	25	・
9		1	3	1	4	24	8	2	2	9	8	11	13		86	2	32	5	44	3
10		2	11	12	15	22	27	14	13	23	6	12	11		168	8	45	21	89	5
11		6	10	4	5	7	12	11	9	9	10	6	11	18(4)	118	1	36	9	65	7
12		4	13	9	12	23	12	14	6	15	12	11	8		139	3	41	12	71	12
13		7	・	・	7	6	10	5	5	14	18	6	6	17(9)	101	6	32	14	45	4
14		6	6	2	6	2	3	8	4	15	14	3	5		74	・	25	17	29	3
15		7	・	2	2	9	18	6	1	2	・	12	2		61	1	20	11	27	2
16		・	3	6	9	8	15	13	10	13	7	6	6	3(6)	99	1	29	26	42	1
17		11	13	11	23	10	15	9	2	2	5	1	4		106	・	41	28	37	・
18		5	・	・	8	2	2	2	6	5	5	1	・		36	・	21	2	11	2
19		1	2	1	・	・	・	・	・	・	・	2	・	2(4)	8	・	4	・	4	・
20		2	3	4	2	・	2	4	1	2	1	10	4		35	・	21	3	10	1
21		1	1	1	1	3	6	・	・	4	2	2	2		23	1	13	2	7	・
22		1	13	14	21	8	1	・	1	・	・	2	8	2(3)	71	1	32	20	12	6
23		4	8	10	5	8	8	13	5	3	14	10	・		88	・	24	4	57	3
24		・	1	2	・	6	7	・	3	6	6	3	1	・(7)	35	・	8	2	19	6
25		4	3	2	5	5	2	5	2	2	1	4	3		38	・	・	・	33	5
26		8	3	1	1	・	1	・	1	・	1	1	・		17	・	・	・	8	9
27		1	・	・	・	3	・	・	1	・	・	・	・	5(5)	10	・	・	・	9	1
28		・	・	・	・	・	・	1	・	2	・	2	1		6	・	・	・	6	・
29		・	・	・	2	1	1	・	・	・	・	・	・		4	・	・	・	4	・
30		・	・	・	・	9	2	1	3	1	1	2	1	・(4)	20	・	・	・	17	3
31		3	1	・	3	・	・	・	・	・	・	3	6		16	・	・	・	15	1
32		7	4	・	6	6	7	3	1	6	4	4	・	8(9)	56	・	・	・	56	・
33		4	4	・	・	1	・	・	6	7	8	3	3		35	・	・	・	35	・

34	2 2 1 5 3 7 14 11 25 11 8 2	91	16 27 16 21 11
35	2 6 7 10 3 5 6 7 7 7 4 5 6(6)	75	3 32 9 25 6
36	5 6 3 5 3 4 6 6 5 5 8 4	60	2 35 5 16 2
37	10 7 3 7 6 4 11 4 6 6 4	68	8 29 6 23 2
38	2 4 3 4 6 2 16 8 20 13 4 2 3(5)	87	11 52 10 13 1
39	13 13 7 20 31 22 30 16 27 10 17 3	209	31 97 32 48 1
40	19 5 17 17 25 19 20 8 18 23 12 5	188	23 103 54 8 .
41	25 18 13 18 13 13 7 7 12 11 7 . 20(2)	164	9 102 52 1 .
42	 1 . . . 1 2 . .	4	. 2 . 2 .
43	1 . . 2 2 . . 1 . 1 . . (7)	7	1 4 2 . .
44	1 . . 1 1 1 2	6	. 2 . 2 2
45	2 2 3 2 3 13 11 9	45	6 25 5 9 .
46	16 31 13 24 18 14 14 16 11 . 10 10 22(5)	199	21 123 50 . 5
47	15 2 2 10 6 10 2 3 3 2 2 .	57	7 38 8 4 .
48	5 8 3 10 10 4 4 1 2 7 3 3	60	4 55 . 1 .
49	3 1 1 3 2 1 . 2 . . 2 1 3(3)	19	3 16 . . .
50	2 . . 1 1 . . .	4	1 2 1 . .
51	. . . 1 . . 2 . . . 1 1 (10)	5	2 7 . . .
52	1 2 薨	3	. 3 . . .
計		3,458	182 460 146 (5.3) (13.3) (4.2)
(%)		(100)	1,424 1,246 (41.2) (36.0)

* 윤달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월 다음 칸(間)에 頻度를 기재하고 그 우측에 윤달을 표시했음. 가령 46년에 22(5)라 한 것은 閏 5월에 22회의 경연을 실시했음을 의미함.

** 『承政院日記』에 간혹 缺本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英祖實錄』의 經筵記事로 보충했음. (예 : 6년 6월, 18년 4월)

둘째로 三講과 二對의 비중이 시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점이 주목된다. 英祖 在位 52년동안의 경연을 통산하면 朝講 182회(5.3%), 晝講 1,424회(41.2%), 夕講 460회(13.3%), 召對 1,246회(36.0%), 夜對 146회(4.2%)로 三講과 二對가 대략 3對 2의 比率이었다. 그러나 英祖의 治世를 3期로 나누어 보면 그 構成比가 크게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卽位年에서 24년까지는 三講이 918회(48.2%)에 二對가 987회(51.8%)로

비중이 비슷했으며, 특히 召對가 주강 보다 약간 더 자주 열렸다.³⁾ 그러나 英祖는 25년 初에 世子에게 形式的인 代理聽政을 시키면서 經筵을 폐지했고 그 후 9年半 동안 一種의 召對만 이따금 실시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三講이 전혀 없었다. 끝으로 英祖가 經筵을 다시 실시하는 34년 6월 16일부터 逝去하는 52년 3월까지의 약 18년 동안에는 양상이 또 달라진다. 이 기간에 三講은 1,136회(85.0%)이며 二對는 200회(15.0%)에 불과하여, 三講의 比重이 압도적으로 컸다. 晝講은 三講合計의 3분의 2를 차지하였으며, 朝講과 夕講도 前半期에 비하면 頻度가 크게 증가했다.⁴⁾

II. 講讀教材

英祖代의 강독교재도 傳統의 遺産이었다. 일찍이 北宋의 經筵에서는 강독교재를 經과 史로 나누어 按配하는 慣例가 있었다. 당시에 經書로는 尚書·詩經·春秋左傳·禮記·周禮·論語·孟子·孝經 등 九經을 강의했다. 史書로는 前後漢書와 北宋代에 편찬된 唐書·資治通鑑·三朝寶訓 등을 經筵에서 공부했다. 南宋에서는 經書中の 周易과 史書인 陸贄奏議와 寶訓類가 약간 追加되었다.⁵⁾ 더우기 宋末에는 四書五經의 體系가 정립되었으며 朱子 등 宋儒들의 經書註釋이 後代의 經筵에 큰 영향을 미쳤다. 史書의 경우에는 資治通鑑·通鑑綱目·大學衍義 등 중요한 교재들이 대부분 宋代의 著述이다. 그 밖에 近思錄·心經·小學·朱子語類·性理大全 등도 宋儒들의 遺産이었다. 그리하여 經筵의 강독교재에는 宋代의 영향이 컸다.

3) 이 기간에 朝講은 35회(1.8%), 晝講은 673회(35.3%), 夕講은 210회(11.0%), 召對는 888회(46.6%), 夜對는 99회(5.2%) 실시했다.

4) 이 기간에 강독을 실시한 回數는 朝講 136회(10.2%), 晝講 750회(56.1%), 夕講 250회(18.7%), 召對 172회(12.9%), 夜對 28회(2.1%)였다. 마지막 18년 동안 실시한 朝講의 回數는 처음 24년에 비해 4배나 증가했다.

5) 前掲「宋代의 經筵」을 參照.

朝鮮初期의 경연에서는 위의 冊들을 거의 다 공부했다. 가령 世宗은 四書와 三經 및 春秋(左傳과 胡傳), 그리고 通鑑·綱目·大學衍義·宋鑑·史記·通鑑續編·性理大全 등을 경연에서 강독했다. 成宗은 여기에 禮記·近思錄·貞觀政要·漢書·高麗史·國朝寶鑑 등을追加했다.⁶⁾ 그후 英祖에 이르는 약 2백년 동안 교재가 약간 추가되었는데, 그중 小學·心經·大學衍義補·東國通鑑·聖學輯要·節酌通編 등이 重視되었다. 小學과 心經은 16세기 初부터 朝鮮의 性理學者들이 이를 重視했고, 丘濬의 衍義補는 15세기 末에 明에서 刊行되었다. 東國通鑑(1484)과 李珣의 聖學輯要(1575)는 國內書로서 경연교재가 되었다. 節酌通編은 17세기 末葉에 宋時烈이 朱書節要(李滉 編)와 朱文酌海(鄭經世 編)를 합치고 내용을 補充한 것이다.

이들 講讀教材는 철저한 이데올로기의 產物이었다. 우선 經書는 모두 宋儒들의 註釋에 따라 읽었다. 가령 詩經에 나오는 素朴한 抒情詩는 엄숙한 倫理的 敎訓으로 해석했다. 史書의 경우에도 모두 鑑戒요 敎訓이었다. 資治通鑑은 그 제목이 示唆하듯이 政治敎科書이며 儒敎式으로 본 興亡의 敎訓集이었다. 綱目은 과도한 名分論과 褒貶으로 理念的인 색채가 훨씬 더 짙었다. 그 밖의 史書도 모두 敎訓集이었다. 또 朱子語類·近思錄·心經·小學 등도 王의 생각과 행동을 規制하기 위한 틀을 제공했다. 이 교재들은 대부분 3백년 전에 世宗이 경연에서 공부한 책들 이었다. 그만큼 강독교재는 保守性이 강했다. 경연교재가 經과 史에 置重한 반면에 子와 集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諸子는 異端이기 때문이며, 文集은 文藝가 末技에 불과하여 帝王學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⁷⁾ 결국 王은 經史 이외의 다른 思想과 接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6) 前掲「世宗朝의 經筵과 儒學」및「朝鮮成宗朝의 經筵」을 參照.

7) 朝鮮初期에 文宗은 兵書를 공부하려다 集賢殿의 反對로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文宗實錄』卷 4, 文宗即位年 11月 28日 참조), 成宗도 莊子·老子·列子·戰國策 등을 공부하려다가 弘文館의 반대로 挫折되었다(『成宗實錄』卷 150, 14년 1월 8, 19, 20, 29일; 同書 卷 161, 14년 2월 8일).

〈表 2〉

教材와 講讀回數*

구분 연도	三 講	二 對
즉위	(卒哭前 未開講)	綱目 8, 心經 7
1	論語 41, 孟子 21	綱目 39, 心經 1
2	孟子 41	綱目 28, 心經 5, 宋鑑 27
3	孟子 25, 中庸 23	心經 10, 皇明通紀(明紀) 24, 宋鑑 2
4	中庸 9, 書傳 20	心經 3, 明紀 12, 大學衍義 23, 朱子封事 14,
5	書傳 46	大學衍義 30, 東國通鑑 26, /禮記 1
6	書傳 6	東國通鑑 25, 國朝寶鑑 3 (夜)
7	書傳 13, 禮記 20	東國通鑑 16, 聖學輯要 29, 國朝寶鑑 4
8	禮記 30	聖學輯要 1, 唐鑑 9, 節酌通編 15
9	禮記 39	節酌通編 31, 國朝寶鑑 6, 陸贄奏議 10
10	禮記 27, 詩傳 47	陸贄 1, 近思錄 16, 李綱奏議 15, 左傳 35,
		名臣奏議 21, 貞觀政要 6
11	詩傳 46	貞觀政要 7, 綱目 65
12	詩傳 28, 周易 25	綱目 46, 宋名臣言行錄 21, 續綱目 19
13	周易 45, 春秋 7	續綱目 35, 大學衍義補 14
14	春秋 42	大學衍義補 32
15	春秋 32	大學衍義補 29
16	春秋 56	大學衍義補 32, 朱子語類(抄) 11
17	春秋 60, 心經 25	通鑑 17, 朱子語類抄 4
18	心經 23	通鑑 12, 夙興夜寐箴 1 (夜)
19	心經 5	通鑑 3
20	心經 13, 近思錄 1, 周禮 11	通鑑 10
21	周禮 16	通鑑 7
22	周禮 53	通鑑 13, 心經 2, 夙夜箴 2, 其他 1
23	周禮 28	通鑑 54, 自省編 4, 夙夜箴 1, 其他 1
24	周禮 10	通鑑 6, 自省編 5, 夙夜箴 11, 其他 3
25	(世子代理 期間中 三講을 中斷함)	周禮 3, 聖學輯要 16, 自省編 7, 夙夜箴 7, 麗史提綱 5
26		聖學輯要 6, 自省編 4, 夙夜箴 4, 其他 3
27		自省編 9, 夙夜箴 1
28		禮記 1, 自省編 5
29		詩傳 1, 節酌通編 3

30		詩傳 8, 書傳 3, 自省編 6, 夙夜箴 2, 小學 1
31		詩傳 10, 自省編 3, 書傳 3
32		詩傳 29, 孟子 6, 中庸 7, 自省編 7, 訓書 4, 其他 3
33		周禮 15, 中庸 7, 書傳 6, 其他 7
34	中庸 50, 大學 9	夙夜箴 10, 心經 18, 自省編 4
35	中庸 35, 大學 10	近思錄 14, 心經 3, 夙夜箴 4, 聖學輯要 4, 自省編 3, 其他 2
36	中庸 24, 大學 18	聖學輯要 17, 夙夜箴 1
37	中庸 27, 大學 15, 孟子 1	聖學輯要 3, 心經 16, 唐鑑 5, 夙夜箴 1
38	中庸 46, 大學 27	心經 13, 夙夜箴 1
39	中庸 55, 大學 18, 論語 63, 孟子 24	綱目 17, 君鑑 14, 宋鑑 17, 自省編 1
40	孟子 128, 詩傳 51	宋鑑 9
41	詩傳 35, 書傳 42, 心經 11, 近思錄 75	心經 1
42	小學 2	小學 2
43	孟子 1, 小學 6	
44	小學 2,	夙夜箴 2, 貞觀政要 2
45	小學 27, 大學 6, 其他 4	貞觀政要 7, 夙夜箴
46	小學 73, 大學 86, 衍義 33, 其他 3, /其他 1	夙夜箴 4
47	小學 23, 大學 21, 衍義 9	衍義 3
48	小學 25, 大學 24, 衍義 10	其他 1
49	小學 9, 大學 7, 衍義 3	
50	小學 2, 大學 2	
51	小學 3, 大學 2	
52	小學 1, 大學 2	

* 承政院日記의 經筵記事에 간혹 敎材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는 前後의 經筵記事에 비추어 推定했음. 또 한번에 두가지 敎材를 강독한 경우에는 앞에 강독한 敎材 하나만 回數에 算入했음.

英祖는 이러한 敎材들을 三講과 二對에서 공부했는데, 三講에서는 經書를 강독하고 二對에서는 史書를 읽었다. 특히 그의 治世의 前半에는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表 2>에서 보다시피 영조는 即位 이후 약 25

년 동안에 論語·孟子·中庸·書傳·禮記·詩傳·周易·春秋集傳·心經·周禮를 차례로 공부했다. 또 그는 即位前 王世弟로 東宮에 있던 3년 동안 小學과 大學을 마치고, 論語와 綱目을 공부하다가 즉위했다. 즉 그는 관례에 따라 學一語一孟一庸의 순서로 四書를 공부한 후 六經을 차례로 공부했다. 六經은 書·詩·易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書經의 講讀이 끝날 무렵에 마침 景宗妃의 喪을 당하였으므로 禮記의 순서를 앞당겼다. 周禮의 進講에 대해서는 贊反論議가 있었다.⁸⁾ 이 교재들을 講讀한 回數를 合算해 보면, 論語 41 회(子路篇 이후), 孟子 87 회, 中庸 32 회, 書傳 85 회, 禮記 116 회, 詩傳 121 회, 周易 70 회, 春秋 197 회, 心經 66 회, 周禮 108 회 등인데 교재의 분량과 강독 회수가 대략 비례한 것 같다.

한편 召對(및 夜對)에서는 주로 史書를 읽었으며, 性理書도 약간 공부했다. 英祖가 即位 이래 24년까지 읽은 史書는 17種에 달하는데, 거기에 특별한 次序는 없었던 것 같다. 영조는 즉위후 綱目(後半)을 75회에 걸쳐 강독하고, 이어서 宋鑑(29 회)과 皇明通紀(36 회)를 공부했다. 그 다음에는 비중이 큰 大學衍義(53 회)와 東國通鑑(67 회)을 읽고 나서, 분량이 적은 唐鑑(9 회)·陸贄奏議(11 회)·李綱奏議(15 회)·名賢奏議抄(21 회)를 강독했다. 끝으로 左傳(35 회)·貞觀政要(13 회)·綱目(111 회)·宋名臣言行錄(21 회)·續綱目(54 회)·大學衍義補(107 회)·通鑑(122 회) 등을 공부했다. 綱目は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공부했으며, 通鑑은 떠엄떠엄 읽었다. 그밖에 心經(26 회)·聖學輯要(30 회)·節酌通編(46 회)·近思錄(16 회)·朱子封事(14 회)·朱子語類抄(11 회) 등도 읽었다. 夜對에서는 國朝寶鑑(13 회)을 공부했으며 夙興夜寐箴도 한 두 번 읽었다.

英祖는 在位 前半期에는 四書와 六經을 體系의으로 공부하고 綱目과 東國通鑑 등 史書를 널리涉獵했다. 그러나 在位 後半期에는 講讀의 樣相이

8) 『承政院日記』 제53권 pp.612下~613上(20년 11월 3일 夜對) 및 p.624上(동년 11월 4일). 東宮에서 공부한 교재는 『列聖朝繼講冊子次第』(奎章閣所藏)에 기록되어 있음.

전혀 달랐다. 그 轉換點은 25년부터 34년까지 世子代理를 이유로 경연을 중단한 시기였다. 이 기간에는 강독의 빈도가 1년 평균 20회 미만이었으며, 교재도 聖學輯要·夙興夜寐箴·自省編(英祖御製) 등 비교적 가벼운 것을 강독했다. 34년 6월에 경연을再開한 후 41년까지는 양상이 약간 달라졌다. 三講에서는 주로 四書를 강독하고 詩傳과 書傳도 약간 공부했으며, 二對에서는 聖學輯要·心經·君鑑·宋鑑 등을 읽었다. 끝으로 42년에서 52년까지는 三講에서 小學·大學·大學衍義만을 강독했으며, 二對는 有名無實해졌다.

Ⅲ. 入侍節次

조선시대 경연의 入侍절차는 世宗—成宗朝에 대체적인 윤곽이 형성되었다. 그후 英祖代에 이르는 2백여년 동안 부분적이 변화가 계속 생겼으며 이러한 변천의 결과를 영조대의 경연에서 볼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入侍하는 관리의 수적 증가이다. 이 점은 조선전기 實錄의 기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입시절차의 세세한 면은 실록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가 없다. 조선후기의 경연에 관해서는 『承政院日記』에 자세한 기록이 있으므로 당시의 입시절차를 재구성할 수 있다. 正祖 7년에 편찬된 『弘文館志』에도 入侍節次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를 英祖代 『承政院日記』의 기록과 대조해 보면 서로 어긋나는 점이 많으므로 규정과 실제와의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조선시대 경연의 入侍절차가 처음 마련된 것은 경연이 본격화된 世宗代였다. 세종이 즉위 후 처음 개강할 때에는 領經筵事(領事) 이하 경연관 전원이 入侍하였는데 이 때에 정한 坐次(坐席配置)가 조선후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즉 正 1品の 領事は 東壁에 西向하고, 正·從 2品の 知事와 同知事は 西壁에 東向하며, 3品 이하는 모두 南쪽에서 北向한다는 원칙이었다. 王이 北壁에서 南面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당시의 六典(經濟六

典)은 1·2品の 경연관과 諫官이 경연에 入侍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世宗은 大臣과 臺諫을 除外하고, 承旨 1명, 講官(集賢殿) 2명, 史官 1명, 도합 4명만 경연에 入侍하도록 했다.¹⁰⁾ 文宗과 端宗의 짧은 在位期間 동안에는 大臣(영사·지사·동지사)과 諫官의 入侍가 부분적으로 실현되기도 했으나 이러한 관례가 정착하지는 못했다.

入侍臣下の 構成은 一日三講이 확립된 成宗代에 定立되었다. 晝講과 夕講의 경우에는 入侍하는 臣下가 대체로 世宗代와 같았으나, 朝講의 경우에는 大臣과 臺諫도 入侍하여 그 구성이 대폭 확대되었다. 大臣들은 領事·知事·同知事·特進官이라는 경연관의 직함을 띠었다. 世宗代와 같이 領事는 議政府의 3政丞이 겸직했고 (성종 초에는 時任 뿐 만 아니라 原任 政丞도 포함), 知事와 同知事は 正·從 2品官 중에서 각각 3명을 選任했다. 特進官은 성종 17년에 신설했는데 東西班 2品官을 거의 망라했으며 정원은 없었다. 朝講에는 領事 1명, 知事 또는 同知事 1명, 特進官 2명이 교대로 入侍했다. 臺諫 즉 司憲府와 司諫院의 官員도 각 1명이 每日의 朝講에 교대로 入侍했다. 講讀官(弘文館員) 2명, 承旨 1명, 史官 1명은 朝講·晝講·夕講은 물론 夜對에도 入侍했다. 요컨대 조강에는 大臣 4명, 승지 1명, 弘文館(玉堂) 2명, 臺諫 2명, 史官 1명—도합 10명이 入侍했고, 그 밖에는 4명이 입시했다.¹¹⁾

成宗 이후 英祖에 이르는 약 2백년 동안 經筵入侍者의 구성이 약간 바뀌었다. 첫째, 孝宗이 北伐政策을 추진할 때 武臣堂上 1명을 경연에 교대로 입시하게 했는데, 그 관례가 그대로 지속되었다. 둘째, 肅宗이 宗臣(宗親) 1명을 경연에 교대로 참석시켰는데 이것도 관례가 되었다. 세째, 大臣의 晝·夕講 入侍는 成宗朝 初期에 실시되다가 中半 이후에 혁파되었는데, 그후 변천을 거쳐 英祖代에는 전통으로 계승되었다. 네째, 宣祖朝以來 在野의 大學者를 徵召하여 經筵에서 講讀을 시키는 관례가 생겼다.

10) 前掲「世宗朝의 經筵과 儒學」參照.

11) 前掲「朝鮮 成宗朝의 經筵」參照.

다만 이른바 山林(또는 儒賢)의 경연입시는 常規가 아니라 特例에 불과했다. 다섯째, 입시하는 史官의 수가 늘었다. 성종조에는 사관 1명이 경연에 입시했으나, 조선후기에는 본래의 사관(이른바 翰林) 2명과 承政院의 注書 1명, 도합 3명이 入侍했다. 이러한 변화를 거쳐서 英祖代의 경연입시자는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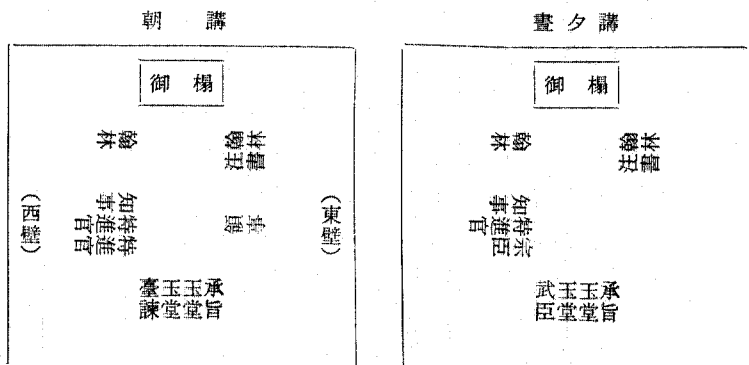
朝講: 領事 1, 知事 또는 同知事 1, 特進官 2, 承旨 1, 玉堂 2, 翰林注書 3, 臺諫 2 (합계 12명)

晝講: 知事(同知事) 1, 特進官 1, 承旨 1, 玉堂 2, 翰注 3, 宗臣 1, 武臣 1 (합계 10명)

夕講: 知事(同知事) 1, 特進官 1, 承旨 1, 玉堂 2, 翰注 3 (합계 8명)

召對 및 夜對: 承旨 1, 玉堂 2, 翰注 3 (합계 6명)

위의 三講과 二對에 모두 入侍하는 것은 承旨(參贊官), 玉堂, 翰注 즉 二對에 입시하는 6명이다. 夕講에는 이들 이외에 大臣 2명(知事 또는 同知事 및 特進官)이 참석했으며, 晝講에는 夕講入侍者 이외에 宗臣과 武臣이 더 入侍했다. (그러나 英祖朝 中葉 이후에는 宗臣과 武臣의 入侍가 폐



* 召對와 夜對의 경우에는 朝講의 坐次에서 東壁(領事)과 西壁(知事와 特進官)이 빠졌다. 知事は “知事 또는 同知事”를 간략히 표기한 것이다.

12) 이 坐次는 崔漢綺의 『講官論』에 수록된 「本朝經筵班次圖」를 참조하여 작성했다. 『明南樓全集』 제 2책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6), pp. 580~581 收錄. 그

지되어 晝講과 夕講의 入侍者 構成이 同一해졌다.) 朝講에는 領事(政丞과 臺諫도 참여하였으므로 入侍者가 가장 많았다. 이들의 坐次는 대략 아래의 그림과 같았다.¹²⁾

이 坐次는 一品東壁・二品西壁・三品以下南壁이라는 조선전기의 기본원칙을 대체로 지켰다. 그러나 史官 즉 翰林 및 注書의 位置는 크게 변하였다. 成宗 때에는 경연의 남쪽 末席에 있던 史官이 王의 左右에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것은 물론 王의 言動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한 조치였다. 東壁은 領事 한명 뿐이므로 坐次의 문제가 없었고, 西壁의 경우에는 知事나 同知事가 王에게 가까운 上席을 차지하고 특진관은 그 다음 자리에 앉았다. 三品 이하의 경우에도 조선 초기의 관례를 따른 것이다. 召對의 坐次는 그림을 생략했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西壁과 武臣을 빼면 된다.

다음에는 경연에 入侍하기까지의 절차를 살펴 보자. 英祖朝에 시행하던 절차는 조선 초기 이래 변천해 온 전통의 소산이다. 그러나 조선초기의 관례는 약간의 단편만 기록에 남아 있어서 그 全貌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는 달리 英祖朝의 慣行은 『承政院日記』에 꽤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正祖 7년에 간행된 『弘文館志』에도 經筵入侍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어서 그 절차를 대략 알 수 있다. 이들 기록을 토대로 하여 英祖朝 經筵의 入侍節次 가운데 (1) 取稟, (2) 懸讀, (3) 習講, (4) 入侍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첫째, 取稟이란 매일 아침에 承旨가 王에게 다음날 경연을 실시하는지 물어서 王이 이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承政院日記』는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기록했는데, “承旨(某)曰, 明日常參經筵取稟. 傳曰, 只晝講”하는 식이다. 承政院에서는 결정내용을 粉板에 써서 大門 밖에 게시했다. 晝

의 講官論은 주로 宋代의 經筵故事를 集成한 것으로, 朝鮮時代의 경연에 관한 것은 이 附錄뿐이다.

宗臣의 入侍는 英祖 36년 6월부터 中斷되었으며 (『承政院日記』 제64권, p. 654 上) 武臣의 入侍는 英祖 45년 10월부터 中斷되었다(同書 제72권, p. 586 中).

講이라면 “來○日午時講”이라고 했고, 停講이라면 “來○日無事”라고 했다, 弘文館 등 해당 관청의 奇別書吏는 승정원의 게시판을 보고 소속 관청에 연락했다. 取稟은 三講에만 적용되었고, 召對와 夜對의 경우에는 取稟과 豫告가 없었다. 즉 王이 아무 때나 승정원에 지시하면 곧 弘文館에 통보하여 召對나 夜對를 실시했다.

둘째, 懸讀란 講讀教材를 준비하는 절차이다. 다음날 강의가 예고되면 弘文館의 冊吏가 大殿에 가서 御覽冊을 가져 왔다. 入番한 玉堂은 다음날 강의할 범위를 적고(自止單子), 御覽冊에 붉은 글씨로 토를 달아서(懸讀), 大內로 돌려 보냈다. 이렇게 강독할 범위를 정하고 토를 달아서 王과 玉堂이 예습할 수 있었다. 召對의 경우에도 이런 절차를 밟았으나, 玉堂이 예습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세째, 習講이란 강의를 豫行演習하는 절차이다. 入侍者들은 公服을 입고 正時前 二刻에 閣門 밖의 幕次에 가서 대기했다. 座長(朝講에는 領事, 晝夕講에는 知事)이 坐定하면 차례로 進拜하고(史官은 除外) 정해진 자리에 앉았다. 冊吏가 각각 앞에 冊 한 卷씩 놓으면, 玉堂 2명이 座長 앞에 나아가 上番(上級者)이 강독교재를 읽었다. (玉堂의 長인 副提學이 入侍할 때는 下番이 읽었다.) 習講이 끝나면 史官이 座目單子(入侍者名單)를 入侍者들에게 차례로 보여 확인한 후 大殿으로 보냈다.

네째, 入侍는 실제로 御前에 가서 강독하는 절차이다. 正時가 되어 禁漏官이 이를 王에게 알리면 王이 外殿으로 갔다. 王이 殿座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幕次에서 대기하던 諸臣이 각각 冊을 들고 座目の 차례대로 들어가서 지정된 자리에 俯伏했다. 俯伏은 조선초기 이래의 오랜 전통으로 그 동안 몇 차례 坐講이 거론되었으나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경연에 들어갈 때는 品階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들어갔으나(領事가 맨 먼저, 史官이 맨 나중), 끝나고 나올 때는 반대로 낮은 사람부터 차례로 나왔다. 講讀의 節次는 뒤에 敎材와 함께 따로 설명하겠다.

끝으로 經筵의 時間과 場所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겠다. 『弘文館志』는

三講의 正時를 규정하여, 朝講은 平明, 晝講은 午正, 夕講은 未正(오후 2시)이 正時라고 했다. 그러나 『承政院日記』에 실린 英祖의 經筵記事를 보면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키지는 않았다. 朝講의 경우에는 계절에 관계 없이 거의 다 辰時(오전 7시~9시)에 실시했으며 이보다 늦은 경우도 이따금 보인다. 가장 頻度가 큰 晝講은 거의 다 午時에 실시했다. 夕講은 正時가 未正(오후 2시)이라고 했으나, 英祖朝 처음 10년 동안은 대개 申時와 酉時에 실시하다가 40년 이후에는 시간이 불규칙했다. 召對는 글자 그대로 不時召對이므로 일정한 기준이 없었는데, 오전보다는 오후에 실시한 경우가 많았다. 경연의 장소는 다양했다. 王은 주로 昌德宮에 起居했는데 여기서는 주로 熙政堂과 宣政殿에서 경연을 열었다. 그밖에 昌慶宮에서는 時敏堂과 進修堂을 자주 사용했고, 晩年에는 慶熙宮에 머물면서 集慶堂과 景賢堂을 愛用했다.

Ⅳ. 강의 방식

英祖代 경연의 강의 방식은 오랜 전통의 산물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宋代부터 經과 史를 교재로 사용했는데, 講經과 讀史라 하여 兩者를 가르치는 방식이 달랐다. 經書의 경우에는 漢代 이후 천 년 이상 축적된 註釋까지 精讀해 가며 字字句句를 철저히 설명했다. 반면에 史書의 경우에는 通讀을 爲主하며 중요한 대목만 설명했다. 朝鮮時代에도 대체로 이러한 방식으로 강의했다. 가령 成宗이 경연을 시작할 때 정한 講規에는 音讀·釋文·說明 및 復習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講經과 讀史를 明文으로 區分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는 經과 史의 강의 방식이 달랐을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전례를 따랐는데, 『承政院日記』에 經筵講義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英祖代의 강의 방식을 살펴 보자.

英祖代의 經筵記事를 검토해 보면, 三講과 二對의 강의 방식이 전혀 달

랐음이 주목된다. 三講의 경우에는, 매번 복습하고 거듭 읽고 또 설명을 보충하여 강의방식이 매우 철저했다. 예컨대 英祖 元年 正月 24 日の 奎講은 다음과 같이 강의가 진행되었다. 첫째, 王이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이른바 前授音)을 復習했는데 經文과 註釋을 모두 읽었다. 여기서 前授音의 범위는 『論語』(集註大全) 憲問篇의 題辭부터 士而懷居章까지였다. 둘째, 侍讀官 徐宗燮가 새로 공부하는 부분(이른바 新授音)을 읽었는데, 그 범위는 邦有道危言危行章부터 愛之能勿勞乎章의 註釋까지였다.¹³⁾ 셋째, 王이 新授音을 한 번 읽었다. 넷째, 侍讀官을 비롯하여 知事와 特進官 등이 번갈아 文義를 敷衍하면서 敎訓을 導出했다. 文義의 설명에는 일정한 격식이 없었다. 玉堂이 이를 主導한 반면에, 承旨·史官·宗臣·武臣 등은 대체로 듣기만 했다. 이날 文義의 첫 대목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侍讀官 徐) 宗燮 釋文義曰：危言危行 非謂矯激也 有廉隅之謂也 故小註亦云 危非矯激也 直道而已也。

上曰：然矣

宗燮曰：言遜 非謂阿諛也 只是欲言而未盡言之意也。邦有道之時 則無可畏之禍 故危言危行。邦無道之時 則危言易以取禍 故言遜 言遜非正道也。

(知事) 閔鎮遠曰：言遜 不可謂之非正道也。邦無道 則言遜之時也。妄言取禍 非望人之中道 故遜言以避禍也。

宗燮曰：李膺·范滂 當邦無道之時 而危言危行 以取黨禍。如郭泰 以同時之人 而獨能免禍者 以其言遜故也。蓋言之遜與不遜 都係於人主所當體念處也。

鎮遠曰：程子 每於經筵講論文義時 必從人主一身上襯切說去 故當時稱之。凡文義之切於君德者 人主各別體念宜矣。

(特進官) 洪致中曰：此章 蓋言處世之道也。無道之世 不能言遜 則言發禍隨。爲士者 辭氣之間 不可一向峻直 以取禍害也。故聖人 有言遜之戒也。如上古 設誹謗之木 建進諫之旌之時 則尙矣何論。而漢唐以來 言路通塞 國之興衰係焉。以言官言之 既在言責之地 君德有關 時政有失 而徒守言遜之戒 不敢直言 則國之危亡必矣 安得不言乎。但言之遜與不遜 實係於人主拒從之如何。君上導之使言 則士有直言之風 而無言遜之戒矣。

上曰。其言皆好 當體念矣¹⁴⁾

13) 前授音과 新授音의 分量은 正祖 元年 板本으로 각각 4張 정도인데, 原文과 大註보다는 小註가 紙面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의 설명은 대략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重要的 字句의 풀이다. 危言은 矯激이 아닌 直道이며, 言遜은 阿諛가 아니라 할 말을 自制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이다. 이것은 바로 註釋에 있는 풀이를 거듭 말한 것이다. 둘째는 言遜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나 不得已 필요하게 되는 狀況을 설명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흔히 故事나 經書의 다른 句節을 引用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했다. 세째는 王에게 敎訓하는 부분이다. 言遜은 君主의 拒諫이 초래하는 현상이므로, 君主는 言遜을 경계하고 直諫을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言官의 직책은 君主를 비판하는 것이므로 言官마저 言遜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같이 三講의 경우에는, 經書의 字字句句를 철저히 풀이하는 한편, 그 구절의 意味를 확대하여 敎訓으로 歸結시켰다. 요컨대 註釋과 敎訓에 아울러 注力한 것이 三講의 강의방식이라고 하겠다.

한편 召對의 경우에는 강의방식이 전혀 달랐다. 우선 王이 前授音을 復習하지 않았다. 또 講官이 교재를 읽은 후에 王이 이를 되풀이하지도 않았다. 여기서는 王이 玉堂·史官·承旨 등 入侍者 全員을 하나씩 指名하여 교재를 차례로 읽게 했다. 이렇게 輪讀하는 가운데 玉堂과 承旨가 교훈이 될 만한 대목을 설명했으며 王도 이따금 질문을 했다. 英祖가 즉위한 후 처음 실시한 召對를 예로 들어 보자. 때는 即位年 9월 29일 밤. 장소는 昌德宮의 無妄閣. 入侍者는 玉堂 2명, 承旨 1명, 史官 3명. 講讀教材는 『綱目』의 梁 天監 3年=魏 正始 元年부터 天監 6年=正始 4년까지. 이 4년간 魏의 記事에는 後代의 王에게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이 많았다. 天監 3년에는 날개 넷에 다리가 넷인 병아리를 魏主에게 바쳤고 이듬해에는 太極殿內에 잔디가 생겼다. 이를 祥瑞라고 하는 논의에 대하여, 侍中 崔光은 두번 上表하여 反駁했다. 전쟁과 가뭄이 계속되는데 이러한 災異가 나타났으니 君主는 더욱 謹慎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天監

14) 『承政院日記』 제31권 pp. 872 下~873 上.

3년에 가뭄이 심할 때 邢巒이 上表하여 先帝의 節儉을 본받으라고 諫言했다. 天監 5년에는 宣武帝가 鹽池의 禁令을 폐지하였는데, 이것은 國用보다 民生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이런 대목에서 講官은 아래와 같이 敎訓을 끌어냈다.

(副提學 朴) 弼夢曰 自古論災異者 類多附會 而其後無不有驗. 崔光前後之表 甚切至矣. 今殿下嗣服之初 變怪疊見 未有命戒之時. 有何所失 而皇天之警告 若是其丁寧耶. 祥桑之枯 熒惑之退 莫不由於實德之修. 願殿下 勿弛修省之念 雖未有失 而益加勉焉.

上曰: 予以不才 忝居此位 豈無上天之見異 夙宵恐懼矣 陳戒之言及此 當留意焉.

弼夢曰: 魏夷狄之君 其治道 何足稱道於今日哉. 然當時邢巒之奏 切直忠實 非與應文備數之比矣. 臣竊念 堯舜之世 抵璧投珠. 及至後世 漸尚侈靡 國弊民貧 亂亡相繼. 而魏主 以紙絹爲帳帳 銅鐵爲轡勒. 其節儉之德 不可以夷狄之主而忽之也.

上曰: 其言善矣.

弼夢曰: 魏有芝生於太極殿 固可爲瑞 而以爲災異 與漢時以芝爲祥者異矣.

上曰: 然 朱子特書者 亦以爲災而然歟.

(同副承旨 趙) 遠命曰: 聖教似然矣.

弼夢曰: 魏之罷鹽禁也 甄琛以救民爲言 蘇巒以國用爲言 而魏主卒從琛議 而除民瘼 可謂賢矣.

上曰: 然.

(侍讀官 成) 德潤曰: 邢巒羊祉爲刺史 則群僚安堵樂業 傅豎眼爲刺史 則復叛爲寇. 以此觀之 守令之擇 不可不慎也.¹⁵⁾

여기서 講官들이 끌어낸 교훈은 네 가지다. 첫째는 祥瑞가 나타났다고放心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災異로 생각하여 더욱 反省하고 修德하라는 것이다. 그러한 先例로 祥桑과 熒惑星의 故事(崔光의 上表에 引用됨)를 들었다. 둘째는 王이 몸소 節儉의 본보기가 되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堯舜의 故事(抵璧投珠)와 魏 孝文帝의 先例(邢巒의 上奏에 引用됨)를 들었다. 세째는 國富보다 民生에 힘쓰라는 것이며, 魏의 宣武帝가 소금의 專賣를

15) 『承政院日記』 제31권 p. 215 下. 이 板本에 가끔 誤字가 나오는데, 崔光의 表가 奪로, 甄琛의 琛이 琳으로 된 것을 訂正했다.

폐지하여 收取를 줄인 예를 인용했다. 네째는 用人에 관한 것으로, 適任者를 쓰면 백성이 安業하나 그렇지 않으면 백성이 동요한다는 얘기였다. 이와 같이 召對에서는 주로 史書를 읽으면서, 옛날 君主들의 잘잘못을 거울로 삼아 王이 현재의 政치를 反省하도록 유도했다.

三講이건 兩對이건 經史를 講讀하는 목적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었다. 강독의 목적은 聖賢의 가르침과 歷史의 교훈을 현재의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講官들은 經史를 강독할 때, 王이 자기의 言動이나 현재의 政치를 반성하도록 유도했다. 英祖 9년 12월 11일의 召對는 그 代表的인 경우이다. 이날의 강독교제는 《陸宣公奏議》였으며 討議의 主題는 陸贄가 唐 德宗에게 말한 君上의 六弊였다. 經筵官들의 誘導에 따라 英祖는 君上의 六弊가 자기에게 해당되는가 물었다. 承旨는 好勝人·恥聞過·驕辯給·眩聰明의 네 가지가 해당된다고 했고, 玉堂은 여기에 厲威嚴을 追加했으나, 恣強復은 모두 除外시켰다. 이에 대해 英祖는 한 조 목적 변명했고, 承旨와 玉堂이 다시 이를 反駁했다.¹⁶⁾

이러한 토론은 이를테면 “過去와 現在의 對話”로서 景運강의의 核心이었다. 여기서 君臣은 현재 정치의 立場에서 聖賢들의 말씀과 先人들의 行蹟을 吟味하고 또 經史라는 尺度를 가지고 현재의 政치를 가늠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토론의 活氣는 王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 달랐다. 가령 王이 묵묵히 듣기만 했다면 景運강의는 牛耳讀經 같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英祖는 말과 의욕과 感情이 모두 풍부한 군주였다. 王의 반응이 매우 적극적이었던 만큼, 景運관들도 經史강의 도중에 時事문제를 많이 논의했다. 아마 君臣 모두 그들의 嘉言을 入侍한 史官이 빠짐없이 記錄하여 後代에

16) 『承政院日記』 제42권 pp. 913下~914下. 다음 논문은 英祖가 景運에서 臣下들을 압도하려고 시도했던 측면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것은 조선후기의 景運에 관한 唯一한 先行研究로 매우 흥미있는 觀點을 제시했다. Jahyun Kim Haboush, "Confucian Rhetoric and Ritual as Techniques of Political Dominance: Yŏngjo's Use of the Royal Lecture,"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5(1984).

傳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여하튼 英祖의 경연강의는 매우 활기가 있었고, 이 점에서는 조선전기 成宗의 경연과 아울러 雙璧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맺음말

英祖는 朝鮮後期の 君主 가운데 經筵制度를 적극 活用한 君主로 손꼽힌다. 그는 在位 52년 동안 약 3千 5百回の 경연을 실시했다. 경연은 入侍者의 構成에 따라서 三品 이하(承旨·玉堂·史官)만 入侍하는 二對(召對 및 夜對)와 二品 이상의 大臣도 함께 入侍하는 三講(朝·晝·夕講)으로 區分된다. 英祖의 경연은 三講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으며, 二對는 약 40%에 이르렀다. 三講 中에서는 晝講이, 二對 中에서는 召對의 比重이 압도적으로 컸다.

英祖가 강독한 教材는 經과 史로 구분되는데, 三講에서는 經書를 二對에서는 史書를 공부했다. 經書로는 四書(大學·論語·孟子·中庸)와 六經(詩·書·易·禮記·春秋·周禮)을 강의했으며, 史書로는 資治通鑑·通鑑綱目·大學衍義·大學衍義補·貞觀政要·名臣言行錄 등 여러 가지를 읽었다. 그밖에 心經과 近思錄 등 性理書도 공부했다. 강독교재는 모두 儒家의 著述이었으며, 諸子百家와 文集類는 철저히 排除되었다.

經筵講義는 玉堂이 主導했으며 經筵堂上인 承旨나 大臣들도 대개 玉堂出身이었다. 또 三講의 경우에는 玉堂이 大臣들 앞에서 豫行練習을 했다. 따라서 경연강의는 일정한 水準을 유지했으며 經典의 解釋은 매우 規格化되었다. 이를테면 5백년전 朱熹의 강의와 별로 다른 바가 없었다. 경연의 講規는 강의의 同質性을 유지하는데 크게 寄與했다. 그러나 이것은 곧 思想의 保守性과 硬直性을 의미하며 經史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可能性을 排除했다. 따라서 經史講義는 政治의 規範을 반복해서 闡明하는 기능을 가진 반면에 당면한 問題들을 새로운 視角에서 보는 것을 극히 어렵게

했다.

한편 경연강의는 王이 經史의 敎訓에 비추어 현재의 政治를 反省하도록 誘導했다. 따라서 王은 경연을 실시할 때 마다 自身의 言動과 政策을 多角的으로 再檢討하는 기회를 가졌다. 英祖는 경연의 이러한 機能을 십분 활용하여 자신의 統治를 改善하는데 상당한 成果를 거두었다. 경연은 君臣 사이의 意見交換을 촉진시켰으며 當面한 문제를 解決하는데도 중요한 端緒와 契機를 提供했다. 英祖代의 대표적인 改革—예컨대 奴婢法의 緩化, 均役法과 蕩平策, 壓膝刑의 廢止 등 刑罰의 改善은 모두 經史講義에서 發源하고 促成되었다고 해도 過言이아닐 것이다.

그러나 경연이 政策의 產室로서 作用하는 데는 분명한 限界가 있었다. 우선 강의가 銜學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경연관들은 經史를 강의할 때 註釋을 많이 논의한 반면에 經史의 敎訓을 현재의 문제에 적용하는데는 소극적이었다. 오히려 그들은 黨論의 是非나 大義名分論에 열중했으며 治人策 보다는 修己論에 치중했다. 이러한 경향은 바로 性理學的 思考方式의 結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조선왕조가 시작된 지 3백년 이상 지나는데 동안 既存體制의 構造的 矛盾이 워낙 누적되어 根本的인 改革이 아니면 이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경연관들은 대개 保守的인 性向이 강했고, 改革을 論議하는데는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경연은 舊體制의 補修와 維持에는 寄與했으나 이를 改編하는데는 限界가 있었다.